

“생모 만나면 태어나게 해줘 감사하다 말할 것”

부모 찾으러 한국 온 미국인 팸 아담스씨

1981년 3월 26일 금남로 박산부인과서 출생...10월 21일 입양
보육원서 지어준 이름 '김아영'...내달 7일 고향 광주 방문 예정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역만리 한국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여성이 있다.
팸 아담스(Pamela adams·여·42)씨는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자다. 그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 '김아영'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김 씨는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시에서 피난민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에 머무르면서 다른 한국인 입양아들과 교류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중이다.

은해 10월 21일 미국으로 입양됐다. 한국에서 남은 기록은 위탁모와 찍은 사진이 마지막이다.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제 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이민사회에서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들으면서 입양아가 많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게 됐죠.”

김 씨는 만 18세가 되던 해 본격적으로 생모를 찾기 시작했다. 대한사회복지회 측에 생모를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었다고. 시간이 흘러 지난 2018년, 입양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다행히 잠시나마 자신을 돌봐줬던 위탁모를 만날 수 있었다. 위탁모는 그해 생을 달리했지만 생모를 찾아야겠다는 김 씨의 궁금증과 열망을 키웠다.

“사실 저희 세자매가 모두 한국인 입양아예요. 각자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나 같은 미국 가정으로 입

“이른 나이에 입양된 탓에 한국에서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지만 늘 제 뿌리가 한국인임을 인식하면서 살아왔어요.”
김아영 씨는 1981년 3월 26일생으로 당시 금남로에 있던 박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성함은 '김순자'이며 출산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산부인과는 화재로 사라진 상태다. 김 씨는 태어난지 2주만에 서울의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대한사회복지회 보육원과 위탁가정에 맡겨졌다가 같



양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막내 동생과 각자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동생은 별 희망없이 김 씨를 따라왔다가 우연히 생모를 찾았지만 생모측의 거부로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김 씨는 “자신도 친모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그는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올해 다시 한국을 찾았다.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준 가족을 찾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뜻에서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만나게 되면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이해



2018년 한국 첫 방문 당시 위탁모와 함께 한 김아영(오른쪽)씨. 왼쪽 사진은 입양 서류에 남아있던 김아영씨 모습.

합니다. 원망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만남을 거절한다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거예요. 가족속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만남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김아영 씨는 다음달 7일 고향 광주를 찾은 예정이다. 어머니 김순자씨를 알거나 제보할 정보가 있다면 광주일보나 김 씨의 메일(Pamela.adams2276@gmail.com)로 제보. /이유빈 기자 lyb54@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3	달뜨기	14:23
해지기	17:23	달짐	01:16

아침 서리 주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광주	맑은하림	5/18	보성	맑은하림	2/17
목포	맑은하림	7/17	순천	맑은하림	5/18
여수	맑은하림	9/17	영광	맑은하림	4/18
나주	맑은하림	2/18	진도	맑은하림	6/18
완도	맑은하림	7/18	전주	맑은하림	4/17
구례	맑은하림	2/18	군산	맑은하림	4/17
강진	맑은하림	4/18	남원	맑은하림	1/17
해남	맑은하림	3/18	홍산도	흐림	12/18
장성	맑은하림	3/1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면바다(남)	1.0~2.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2:31	09:21
여수	14:43	22:01	
	10:30	04:41	
	23:36	17:16	

◇ 생활지수

감기	심뇌혈관	미세먼지
주의	주의	보통

◇ 주간 날씨

23(목)	24(금)	25(토)
11/16	3/5	-1/8
26(일)	27(월)	28(화)
0/11	6/14	5/9

호남대, 광주·전남 소방발전협의회 협약식 개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학과장 노선균)는 최근 교내 IT스퀘어에서 '광주·전남 소방발전협의회 협약식 및 제1회 학술컨퍼런스'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호남대 소방행정학과가 주축이 돼 발족한 '광주·전남 소방발전협의회'에 전남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 및 광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문용)가 새로 참여했다. 전남소방본부, 광주소방안전본부 및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소방 안전을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학술대회는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동신대 소방행정학과(학과장 백은선),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학과장 배승용), 조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학과장 손원배) 등 관련학과 교수들이 참여해 소방·방재 분야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부영그룹, EBS 나눔 프로그램에 10억 기부

국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EBS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 0700'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10억 원 기부 이후 이번 기부액만 20억 원이다.
부영그룹 이종근(사진 왼쪽에서 네번째) 회장은 20일 부영그룹 사옥에서 EBS 김유열 사장, 남선숙 방송제작 본부장 등을 만나 1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전액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진다.
이 회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0700' 프로그램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영그룹은 교육·문화시설 기증, 장학사업, 역사알리기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1조 1000억 원이 넘는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 아빠와 자녀 1박2일 캠프



광주교육시민협치추진단원들이 지난 17~18일 초5~중3 학생, 30가족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1박2일 캠프'를 실시했다. (광주교육청 제공)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선임

문인철(사진) 전 로이슈 대표이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문 신임 상임이사는 화순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국회 정책연구위원, 로이슈(인터넷 언론)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 상임이사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관리·비축사업·식량관리 부서를 총괄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중동(전 광주일보 시사만화가)-문명아씨 장남 호연군, 김양근(극단 열쑈 대표)-이희정씨 장녀 재희양 = 26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서구 서구 죽봉대로 153 웨딩그라운드 1층 메리엘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초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

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강사의 운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애입관 용품무료지원, 장애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

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육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기술,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장터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

학교 건너편, 플랫폼장터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